



문화부 · 인협 인쇄정책 간담회

인쇄역사문화관 관람도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국 소속 직원 30여명이 지난 5월7일 오전 10시 대한인쇄문화협회를 방문, 홍우동 회장과 민창준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쇄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홍우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

화미디어국 전 직원이 협회를 방문해 취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인쇄문화산업이 지식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운 출판산업과장은 “유기적인 대화와 업무 파악

을 통해 인쇄문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회를 방문한 문화부 직원들은 인쇄문화회관 5층에 조성된 인쇄역사문화관을 돌아보고 인쇄업계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1. 활자의 역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2. 세계인쇄연표를 보고 있는 사람들. 3. 인쇄협회를 방문한 문화부 직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홍우동회장(맨 오른쪽)과 민창준 부회장(맨 왼쪽) 4~5. 고인쇄 시연을 하고 있는 관계자들. 6~7. 금속활자 제작과정을 담은 디오라마와 고서를 관람하고 있는 문화부 직원들. 8. 인쇄역사문화관을 둘러본 후 인쇄문화회관 앞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